

수교 50주년 한-뉴 경제관계변화와 협력방안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한-뉴 경제관계 고찰 / 2

- | | |
|----|---------------------|
| 2 | 1. 뉴질랜드개황 |
| 12 | 2. 한-뉴 무역·투자 관계의 변화 |

II. 수교 50년을 맞은 뉴질랜드와의 협력 확대 방안 / 18

- | | |
|----|----------------------|
| 18 | 1. 무역 분야 |
| 21 | 2. 투자 및 협력확대 분야 |
| 24 | 3. 한-뉴 FTA를 통한 협력 방안 |

III. 시사점 / 26

요 약

올해로 수교 50주년을 맞는 한국과 뉴질랜드는 뉴질랜드의 한국전 파병,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 지지, 한국인들의 이민 및 조기유학 등 그동안 상호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공고한 협력자 관계를 지속해 왔다. 상호 보완적인 상품으로 진행된 양국의 무역 역시 2011년 교역규모가 25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성장을 계속해 왔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가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과 뉴질랜드 경제도 커다란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이고도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로 양국간 새로운 형태의 협력관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뉴질랜드 수입시장에서 전통적인 강자로 군림했던 유럽, 미국, 일본 상품들이 아시아에 자리를 내주기 시작하면서 한국 상품에도 기회가 생기고 있다. 우리 수출이 2011년 처음으로 11억 달러를 돌파한데 이어, 국가 및 브랜드 인지도가 오르고 품질 및 디자인이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수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자원 및 식량부족 문제 등이 부각되면 될수록 뉴질랜드의 활용도가 커져, 원목, 유제품, 육류 등 1차 상품의 안정적 공급처로서 뉴질랜드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다. 또한 양국은 관광산업, 영화산업, 녹색산업, 보트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의 여지가 많은 상황이다.

양국간 협력관계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담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FTA 협상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 협상이 재개될 경우 원-원의 협상결과 도출을 위한 양국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은 물론이다.

지난 50년간 양국은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왔지만 앞으로의 50년은 단순한 우호관계를 넘어 중요한 경험 파트너 관계로 한 단계 승화 발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각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I. 한-뉴 경제관계 고찰

1. 뉴질랜드 개황

가. 국가개황 및 경제특성

□ 국가개황

- 영연방 국가인 뉴질랜드는 남태평양에 위치한 섬나라로 온화한 기후와 수려한 자연풍광을 가진 청정 이미지 보유 국가
 - 북섬과 남섬으로 이루어진 뉴질랜드는 남한의 2.7배에 달하는 면적에 인구가 441만 명에 불과하여 생활하기에 쾌적하며(인구밀도: 16.5명/km²), 인구의 75%가 북섬에 거주
 - 수도는 북섬에 위치한 웰링턴이며, 가장 큰 도시는 인구 150만명의 최대 상업도시인 오클랜드
 - 인근 국가로는 호주가 대표적이며, 피지, 통가, 사모아, 타이티 등 도서국들이 인접

<뉴질랜드 일반사항>

위치	대양주 남단
면적	270,534 km ² (한반도의 1.2배, 남한의 2.7배)
기후	온난해양성 기후 (1월평균 16.5℃, 7월평균 8℃)
주요도시	오클랜드(150만), 웰링턴(39만, 수도), 크라이스트처치(38만)
인구	441만 명
공용어	영어, 마오리어

□ 경제약사

- 시장경제체제를 가진 뉴질랜드 경제는 대외 교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외국 기업에는 매우 개방적
 - 주요 수출품은 유제품, 양모, 육류 등
 - 1950년대에는 소득 수준이 매우 높은 선진국 대열에 포함되었으나 주요 수출시장이던 영국의 유럽경제공동체(EEC) 합류(1973년)에 따른 수출 감소와 1차 상품 가격의 등락에 따른 타격을 받아옴

- 1980년대와 1990년대 뉴질랜드 경제는 물가급등, 저성장, 고실업, 국가신용도 하락 등 장기간의 침체기를 맞기도 함
- 최근 뉴질랜드 경제는 FTA 확대 등 적극적인 대외교역 정책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확대로 과거의 침체를 벗어나려 노력 중
- 2000년대 들어 1차 상품의 국제가격 상승과 뉴질랜드 달러의 저평가 등으로 뉴질랜드 경제는 비교적 양호한 성장을 이룩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도 호주와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둔 국가로 평가

□ 최근 경제·사회 지표와 특징

- 뉴질랜드의 GDP는 2011년 기준 1619 달러(USD)로 세계 56위 기록 (IMF)
- 호주(13위)에 비해서는 약 9.2분의 1, 한국(15위)에 비해서는 7분의 1 수준
- 1인당 GDP(명목)는 36,648 달러로 전 세계 국가 중 23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한국(35위)의 22,778 달러에 비해서는 높고, 호주(6위)의 65,477 달러보다는 낮은 수준
- 하지만 구매력평가기준 1인당 GDP는 27,668 달러로 한국의 31,714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
- * 호주의 구매력평가기준 1인당 GDP는 40,234 달러

<주요 경제·사회지표>

구 분		2009	2010	2011
GDP (실질, NZ\$십억)		136.04	134.41	136.55
GDP 성장률 (%)		-1.4	-1.2	1.7
GDP (명목, US\$십억)		117.80	140.79	161.85
1인당 GDP (명목, US\$)		27,259.28	32,225.99	36,648.20
1인당 GDP (구매력평가기준, US\$)		26,658.34	26,996.52	27,668.37
실업률(%)		6.1	6.5	6.5
물가 상승률(%)		2.1	2.3	4.0
산업구조 (GDP 비중) (%)	1차	7.11	7.45	7.12
	2차	21.76	20.84	20.56
	3차	68.25	69.08	68.97
외환보유액 (US\$억)		170.9	171.9	174.7

자료원: 뉴질랜드 통계청, 뉴질랜드 중앙은행, IMF

- 뉴질랜드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과 2010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2011년에는 남섬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발생한 규모 6.1의 지진 영향으로 성장률이 1.7%에 그침
- 다만, 2010년과 2011년 주력 수출상품인 1차 상품의 국제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 것과 아시아와의 교역을 확대해 온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버텨내는 동력으로 작용
- 향후 뉴질랜드 경제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는 지진 복구 작업, 1차 상품의 국제가격과 환율 변동 등이 있음

나. 대외교역 현황

□ 교역규모

- 2011년 총 교역규모는 680억 달러로 전 세계 국가 중 61위를 기록
- 수출은 343억 달러로 58위, 수입은 336억 달러로 57위를 기록함

- 교역 순위로 뉴질랜드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때 뉴질랜드는 과거에 비해 후퇴한 것으로 나타남
 - 1991년 전체 교역 순위 44위를 기록했던 뉴질랜드는 2001년에는 50위, 2011년에는 61위를 기록

<시기별 뉴질랜드의 수출입 순위>

	1991	2001	2011
수출(US\$억,순위)	96 (43위)	135 (49위)	343 (58위)
수입(US\$억,순위)	84 (43위)	134 (49위)	336 (57위)
전체(US\$억,순위)	180 (44위)	269 (50위)	680 (61위)

자료원 : 뉴질랜드 통계청, 뉴질랜드 중앙은행

□ 교역상품

- 수출입 상품 뚜렷이 구분
 - 1위 수출 품목은 25%를 차지하는 낙농품이며, 그 뒤를 육류(11.5%), 원목(6.7%)이 따르고 있는데 전체 수출에서 이들 1차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상회
 - 반면 제조업이 발달하지 못한 관계로 원유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입품은 공산품이 차지하며, 주요 수입품목인 자동차, 전자제품 등을 전량 수입에 의존

< 2011년 뉴질랜드 10대 교역 상품 >

(단위: US\$백만)

수출			수입		
품목	금액	비중(%)	품목	금액	비중(%)
낙농품	9,455	25.07	연료(원유 포함)	6,392	17.21
육류	4,355	11.55	기계류	4,483	12.07
원목	2,531	6.71	자동차	3,455	9.30
화석연료	2,002	5.31	전자제품	3,184	8.57
기계류	1,449	3.84	플라스틱	1,314	3.54
기타	1,409	3.74	항공기	1,247	3.36
과일류	1,279	3.39	의료기기	1,076	2.90
음료	1,079	2.86	의약품	885	2.38
수산물	1,078	2.86	종이	815	2.20
알루미늄	984	2.61	철강제품	610	1.64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교역국가

- 최대 교역 국가는 호주로 전체 수출의 23%, 수입의 15.7%가 호주와의 교역임
 - 하지만 수입의 경우, 2011년 처음으로 중국이 호주를 누르고 1위 수입대상국가로 부상
 - 우리나라는 5위 수출대상국과 8위 수입대상국의 위치에 있음

<2011년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입 대상국>

(단위: US\$백만)

국가명	수출액	비중(%)	순위	국가명	수입액	비중(%)
호주	8,594	22.8	1	중국	5,901	15.9
중국	4,633	12.3	2	호주	5,843	15.7
미국	3,157	8.4	3	미국	3,961	10.6
일본	2,726	7.2	4	일본	2,312	6.2
한국	1,323	3.5	5	싱가포르	1,710	4.6
영국	1,217	3.2	6	독일	1,581	4.2
인도	744	2.0	7	말레이시아	1,169	3.1
대만	709	1.9	8	한국	1,151	3.1
말레이시아	690	1.8	9	태국	1,051	2.8
인도네시아	678	1.8	10	영국	1,010	2.7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뉴질랜드 교역에서 가장 큰 변화는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 비중이 점점 높아가는 반면, 서구와의 교역비중은 하락추세에 있다는 것
 - 2001년 서구와의 무역총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던 비중이 58.2%였는데 10년 후인 2011년에는 46.4%로 하락
 - 반면, 아시아국가와의 교역 비중은 같은 기간 39.6%에서 45.6%로 빠르게 증가했는데, 최근 뉴질랜드 정부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경험에 나선 때문으로 보임

<지역별 교역 규모 변화 추이>

(단위: US\$백만)

지역	2001		2006		2011	
	무역총액	비중	무역총액	비중	무역총액	비중
서구국가(호주 포함)	13,632	58.2%	22,637	54.6%	28,852	46.4%
아시아국가(중국, 일본 포함)	9,262	39.6%	16,913	40.8%	28,379	45.6%
기타 (중동 등)	524	2.2%	1,890	4.6%	4,937	7.9%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주) 분석대상: 연도별 뉴질랜드와의 교역 순위 상위 20개국 및 20개국 무역총액

다. 시장특성

□ 먼 나라, 소(小) 시장

- 남태평양 섬나라인 뉴질랜드는 호주와 인근 도서국을 제외하면 세계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과 비행기로 10시간 이상의 원거리에 위치
 - * 서울에서 11시간 55분, 런던에서 22시간 47분
- 이는 뉴질랜드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은 물론, 해외기업들의 뉴질랜드 시장접근에도 큰 장애로 작용
- 441만 명에 불과한 인구는 뉴질랜드의 시장 가치를 떨어뜨려 자체 산업발달은 물론 해외기업들의 시장진출에도 걸림돌로 작용
 - 작은 내수시장은 규모의 경제를 어렵게 해 제조업의 공동화를 초래하고 있고, 그 결과 대부분의 소비재를 수입에 의존
 - 작은 시장 규모로 인해 다품종소량 구매가 일반적이고 중간상들의 높은 마진과 외국 기업들의 가격차별 정책으로 최종 소비자 가격은 매우 높게 형성

□ 호주에 대한 높은 의존도

- 호주와는 1990년부터 CER(Closer Economic Relations) 관계를 맺고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류는 물론, 제품 표준 및 세금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의 경제권으로서 보조를 맞춰옴

<뉴질랜드 전체 교역에서 호주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1991	2001	2011
수출(US\$백만,%)	1,808 (18.76%)	2,594 (18.92%)	8,595 (22.79%)
수입(US\$백만,%)	1,851 (22.05%)	2,912 (21.91%)	5,843 (15.74%)
총액(US\$백만,%)	3,659 (20.29%)	5,506 (20.39%)	14,438 (19.29%)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이에 따라 뉴질랜드 시장에서 호주 바이어가 관리하는 분야가 많았는데 최근 뉴질랜드 바이어가 독자적으로 직수입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호주 영향권에서 탈피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높은 미국, 유럽 제품의 대체품으로 중국, 한국 등 아시아 상품이 부각되고 있음

□ 아시아에 대한 높은 기대감

- 뉴질랜드는 아시아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아시아와의 협력 필요성을 특히 강조
 - 2001년 이후 모두 13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발효시켰는데 이 중에서 비아시아국가는 칠레 1개국에 불과할 정도로 아시아와의 교역에 집중
 - 특히 2008년 중국과의 FTA가 발효된 후 중국 상품의 연평균 수입 증가율이 16.8%(금융위기로 급감한 2009년의 -14.38% 포함)에 달하고 있고, 총리가 직접 나서 뉴질랜드의 미래가 중국에 있다고 강조할 정도로 중국에 큰 기대감을 표시

- 최근 뉴질랜드 정부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인도와 중국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보고 경제협력을 추진 중
 - 2011년 뉴질랜드 정부는 '주식회사 뉴질랜드 전략 (NZ Inc. Strategy)'라는 대외 경협확대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하면서 인도와 중국 보고서를 가장 먼저 발간

라. 산업특성

□ 낙농 선진국

- 전체 수출에서 약 4분의 1을 유제품(분유, 버터, 치즈)이 차지하고 있고, 육류, 양모 등을 합할 경우 낙농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상품의 비중이 약 40%에 육박
 - 전 세계 분유의 약 40%와 유제품의 약 3분의 1을 공급
 - 유제품 영농조합기업 폰테라(Fonterra)가 개인 농장 가축의 전반적 관리를 담당하며, 유제품의 90% 이상을 취합해 해외로 수출, 연간 140억 달러의 소득 기록
 - 다만, 유제품의 높은 수출비중은 유제품의 국제가격 변동에 국가경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인으로 작용
- 뉴질랜드 낙농업의 기반은 넓은 목초지와 인구의 10배에 달하는 가축에서 나옴
 - 전국토의 54%에 달하는 목초지에서 방목되고 있는 가축은 인구의 10배에 달하는 4260만 마리
 - 2011년 6월 기준으로 양이 3114만 마리이며, 젖소가 617만 마리, 육우가 388만 마리임. 그 외 100만 마리의 사슴과 33만 마리의 돼지가 있음
 - 혹한이나 혹서의 기후가 없어 대부분의 가축들은 방목으로 사육

□ 청정이미지의 관광국가

- 뉴질랜드는 ‘마지막 지상낙원’으로 불릴 정도로 천혜의 자연환경과 청정이미지를 보유
 - 남섬 퀸스타운의 만년설 덮힌 산맥과 피오르드, 북섬 로토루아의 간헐천 및 유황온천 등 대표적 관광지를 비롯, 빙하지형, 화산지형, 평원지대 등 다양하고 장엄한 자연경관을 보유
- 천혜의 자연환경은 연간 약 25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산업과 연 매출이 30억 달러에 달하는 영화산업의 근원이 되고 있음
 - 관광산업은 뉴질랜드 전체 GDP에서 3.8%를 차지하며, 관광산업 종사 인구는 모두 9만2천 명으로 전체 노동인구의 4.8%를 차지
 - 장엄한 자연경관 덕분에 블록버스터 판타지 영화들의 촬영장소로 각광받고 있는데, 아바타, 반지의 제왕, 나니아 연대기, 올드보이, 실미도 등이 뉴질랜드에서 촬영된 바 있음

□ 빈약한 제조업

- 취약한 제조업, 현지 공장 폐쇄사례 잇따라
 - 작은 내수시장과 세계 주요시장과의 원거리 때문에 제조업이 갈수록 퇴보하면서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 1990년대 중반 도요타, 포드, 혼다, 마즈다가 자동차 공장을 폐쇄했고, 뉴질랜드 최대의 백색가전 생산업체인 Fisher & Paykel사 역시 2008년 세탁기 공장을 태국으로 이전
- 다만, 낙농업, 임업, 보트산업, 식품산업, 재생에너지산업 등은 뉴질랜드가 강점을 보유

□ 한-뉴 관계 역사

- 1950 한국전쟁 뉴질랜드 군인 6,020명 참전(45명 전사)
- 1962.3 외교관계 수립
- 1968.9 박정희 대통령 공식 방문
- 1971.6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개설
- 1971.7 주뉴질랜드 한국 대사관 개설
- 1978 무역협정 체결
- 1979~ 매년 통상장관 회담 개최
- 1980 항공 협정 체결
- 1986 정식 이민 시작
- 1991 점수제 이민제도 시작, 한국 이민자 급증
- 1993.11 대한항공, 에어 뉴질랜드 김포-오클랜드 노선 취항
- 1994.8 Visa 면제 협정 체결
- 1995 한국 관광객 10만명 돌파
- 1996.12 오클랜드 대사관 분관 개관
- 1999.5 Working Holiday 협정 체결
- 2002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 2009.3 이명박 대통령 공식 방문
- 2010.7 존 키 뉴질랜드 총리 방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 회담
- 2011 한-뉴 교역액 미화 25억 달러 돌파

2. 한·뉴 무역·투자 관계의 변화

가. 무역관계

□ 한국의 55위 수출대상국, 37위 수입대상국

- 한국에게 뉴질랜드는 55위의 수출대상국이자 37위의 수입대상국 위치를 차지(2011년)
 - 2012년 1월~5월 기준으로 수출은 51위, 수입은 39위를 기록
- 2011년 최초로 對뉴질랜드 수출 10억 달러 돌파
 - 한국의 對뉴질랜드 수출은 1987년 1억 달러를 돌파한 후 24년만인 2011년 10억 달러를 돌파. 수입은 1983년 1억 달러, 2007년 10억 달러 돌파
 - 한국은 뉴질랜드를 상대로 거의 매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중이며 2011년 적자 규모는 3억7000만 달러에 달함

<최근 5년 및 10년 주기 對뉴질랜드수출입>

(단위: US\$백만)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2011	1,104	20.2%	1,474	25.4%	-370
2010	918	3.1%	1,176	33.7%	-257
2009	891	8.0%	879	-21.6%	11
2008	825	18.0%	1,122	-4.2%	-297
2007	699	3.9%	1,171	21.1%	-472
2001	272	-4.9%	743	5.9%	-471
1991	120	-7.3%	501	10.9%	-380
1981	37	30.6%	83	9.9%	-47
1971	1	20.7%	3	-6.2%	-2

자료원 : 한국 무역 협회

□ 對뉴질랜드품목별 수출입 동향

- 양국의 교역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상호보완성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교역 상대국의 역할을 수행
 - 한국의 수출품은 대부분 공산품이며, 수입품은 대부분이 1차 상품으로 상호 보완성이 높은 교역 구조
 - * 양국은 계절이 정반대이므로, 농업부문에서 상호 교류가 바람직한 품목들도 다수 존재
 - 한국의 수출은 일부 어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공산품이며 1위 품목은 2011년 현지 시장 점유율 13.89%를 차지하는 자동차임. 2위와 3위 품목은 경유와 휘발유로 이는 뉴질랜드의 정유시설 부족에 따른 현상
 - 한국의 수입은 대부분이 1차 상품이 차지하는데 원목이 1위이며, 낙농품, 가축육류 등의 순으로 수입 중

<한국의 대뉴질랜드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US\$백만)

순위	수출품목	금액(2011)	수입품목	금액(2011)
1	승용차	191.2	원목	332.1
2	경유	169.9	낙농품	225.4
3	휘발유	95.7	가축육류	160.4
4	철도차량	65.6	기타석유화학제품	119.8
5	기타어류	44.2	알루미늄괴및스크랩	110.0
6	건설중장비	42.4	펄프	80.2
7	오징어	38.2	과실류	69.4
8	합성수지	33.3	단백질류	37.5
9	기타석유화학제품	24.3	제재목	36.0
10	석도강판	23.8	고철	32.8

자료원: 한국무역통계, 주) 품목은 MTI 4단계 분류

- 시대별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 뉴질랜드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
 - 자동차가 계속해서 1위를 기록 중이며, 경유, 휘발유, 건설중장비 등이 계속해서 주요 수출품목에 포함되고 있음
 - 철도차량의 경우는 웰링턴 전철화 프로젝트 낙찰에 따른 물량이며, 이를 제외하고는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품목은 없음

<對뉴질랜드수출 품목 및 비중 변화 >

(단위: US\$백만)

순위	1996년		2006년		2011년	
	품목	비중 (%)	품목	비중 (%)	품목	비중 (%)
1	승용차	21.0	승용차	16.8	승용차	17.3
2	합성수지	7.3	경유	11.6	경유	15.4
3	아연도강판	4.3	무선전화기	7.3	휘발유	8.7
4	건설중장비	4.3	합성수지	6.4	철도차량	6.0
5	타이어	3.9	건설중장비	5.3	기타어류	4.0
6	필름류	3.4	휘발유	5.3	건설중장비	3.8
7	경유	3.4	기타석유화학제품	3.1	오징어	3.4
8	칼라TV	2.6	인쇄용지	2.8	합성수지	3.0
9	중후판	2.1	아연도강판	2.2	기타석유화학제품	2.2
10	인쇄용지	2.1	칼라TV	2.1	석도강판	2.2

자료원: 한국무역통계, 주) 품목은 MTI 4단계 분류

- 한국의 수입 품목 역시 시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원목이 꾸준히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낙농품, 가축육류, 알루미늄 및 스크랩, 펄프, 과일류 등 1차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
- 한편, 수입 품목 중에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뉴질랜드로부터의 수입이 1위인 품목 다수
 - 1위 품목으로는 원목, 낙농품, 단백질(카세인 산염, 커피프림 재료 등 동물성지방)류, 양가축이 있으며, 2위 품목에는 기타육류, 동물성 한약재, 3위 품목에는 채소류, 단판, 4위 품목에는 가축육류, 모류, 5위 품목에는 골판지원지, 동물성 유지

<對뉴질랜드수입 품목 및 비중 변화 >

(단위: US\$백만)

순위	1996년		2006년		2011년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1	원목	36.6	원목	31.9	원목	22.5
2	알루미늄괴 스크랩	11.6	가축육류	17.2	낙농품	15.3
3	양가죽	8.6	낙농품	6.6	가축육류	10.9
4	가축육류	7.5	알루미늄괴 스크랩	5.7	기타석유화학 제품	8.1
5	기타석유화 학제품	6.9	과실류	4.9	알루미늄괴스 크랩	7.5
6	낙농품	3.8	펄프	4.2	펄프	5.4
7	펄프	2.9	단백질류	2.9	과실류	4.7
8	제재목	2.7	동괴및스크 랩	2.4	단백질류	2.6
9	단백질류	2.7	기타석유화 학제품	1.8	제재목	2.4
10	소가죽	1.8	나프타	1.8	고철	2.2

자료원: 한국무역통계, 주) 품목은 MTI 4단계 분류

나. 투자관계

□ 對뉴질랜드 직접투자

- 이민, 생활형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
 - 우리나라의 대뉴질랜드 투자는 기업의 투자는 많지 않은 반면, 건당 신고 금액이 평균 약 130만 달러에 불과한 소규모의 이민, 생활형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
 - 이는 2000년 초 뉴질랜드 정부의 장기 사업자 비자 정책에 따른 이민자들의 투자 방식에 기인하며, 투자분야도 창업을 용이한 도소매업, 숙박요식업, 서비스업 등이 대부분

- 기업 투자는 임업 및 식품분야에 치중
 -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일부 우리 기업들이 임업 및 식품 분야에 투자
 - 임업분야에 대한 투자는 뉴질랜드가 세계 1위의 평균 일조량과 풍부한 강수량으로 나무의 성장이 빠른 자연적 특성을 가졌기 때문이며, 뉴질랜드가 우리나라 제1의 원목 수입대상국인 것도 한 원인
 - 또한 유일한 제조업 분야 투자는 식품분야에 투자한 오투기이며, 97년부터 공장을 운영 중

<최근 3년 업종별 투자 동향>

(단위: 건, US\$천)

분류	2009		2010		2011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림/임업/어업	4	1715	4	1618	5	2242
광업	1	3311	2	4720	1	44248
제조업	2	307	1	17	3	103
건설업	-	-	-	-	-	-
도소매업	1	5	8	8427	2	195
운수업	2	836	2	119	3	570
숙박음식업	1	157	2	184	6	1214
부동산/임대업	2	5730	1	187	0	0
기타 서비스업	4	1733	2	1483	2	264
합계	17	13,794	22	16,755	22	48,836

자료원 : 한국 수출입 은행, 주) 기준: 신고기준

- 한국기업 진출현황
 - 뉴질랜드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총 18개사로 국민은행, 기아자동차, 대주하우징, 대한항공, 대한전선, 디케이코리아, 삼성전자, 오투기, 한솔, 현대자동차, LG전자, LS전선, 동남, 동원수산, 주암산업, 사조, 태진, GOM 등

□ 對한국 직접투자

- 뉴질랜드의 對한국 투자는 미미
 - 뉴질랜드에는 한국에 투자할 만한 규모를 가진 기업이 별로 없고, 한국의 부동산 및 금융업에 투자할 만한 자본도 부재
 - 일부 소규모 투자는 농업이나 가공업 등에 포진

<최근 3년 업종별 투자 동향>

(단위: 건, US\$천)

분류	2009		2010		2011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제조업	1	220	-	-	2	180
서비스업	3	120	6	718	2	179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	-	1	30,000	-	-
합계	4	340	7	30,718	4	359

자료원 : 지식경제부, 주) 기준: 신고기준

- 뉴질랜드기업 진출현황
 - 한국에 진출한 뉴질랜드 기업은 약 12개 정도로 Zespri, Beef and Lamb, Fonterra, Silver Fern Farms, Air Borne Honey, Comvita, Nextwindow, Rakon, Right Connect, Compac Sorting, Air NZ, Tourism NZ 등

II. 수교 50년을 맞은 뉴질랜드와의 협력 확대 방안

1. 무역 분야

□ 기회 생기는 뉴질랜드 시장

- 보수적 구매 관행 변화로 시장진입 상품 다변화
 - 보수적 구매 성향을 가진 뉴질랜드 바이어와 소비자들에게 호주, 유럽, 미국, 일본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유독 강했음
 - 최근 글로벌 경쟁 격화로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상품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중국 등 아시아 상품의 상승세가 겹치면서 새로운 상품들에게도 시장 진입의 기회가 열리고 있음
 - 특히, 한국 상품은 값비싼 선진국 상품을 대체하고, 품질이 저급한 중국 상품의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큼
- 브랜드 인지도 확보가 급선무
 - 뉴질랜드 소비자들은 브랜드 충성도가 매우 강한 편으로 일단 인지도가 확보되면 큰 어려움 없이 시장 확대 가능
 -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상품의 브랜드 인지도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이 한국 상품의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

□ 전자제품, 자동차, IT제품 등 한국 상품 유망

- 한국산 고급소비재 시장 전망 양호
 - 한국산 스마트폰, 스마트TV 등 고급전자제품의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일본 전자제품의 약세가 본격화하면서 한국 전자제품 회사들의 시장 확대가 빠르게 진행
 - 2011년 하반기부터 추진 중인 뉴질랜드의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작업이 지역별로 속속 완료되기 시작하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전자제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한국산 자동차의 품질, 디자인,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현대차, 기아차의 판매도 더욱 호조를 띠 전망
- 이러한 대기업 상품의 약진은 한국산 제품 전체의 이미지 제고로 이어져 중소기업 제품의 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농업 및 건설 분야 중소기업 제품 유망

- 남반구 최대 농업박람회 활용 마케팅 필요
 - 농목축업은 뉴질랜드가 매우 큰 시장을 보유한 분야로 농목축업과 관련된 각종 상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게는 기회 시장
 - 특히, 매년 6월 해밀턴에서 개최되는 남반구 최대 농업박람회인 필데이스(Fieldays) 박람회를 마케팅 장소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권장

<필데이스(Fieldays) 농업박람회 개요>

명칭	필데이스(Fieldays) (남반구 최대 농업박람회)
2012년 개최시기	2012. 6. 13 ~ 6. 16 (4일간) (44회째)
개최장소	해밀턴(Hamilton) (뉴질랜드 북섬 농업도시)
참가업체수	약 1,000개사 (해외 약 150개사 포함)
관람객수	약 120,000명
주요전시품목	농기계, 농기구, 농업용 GPS, 비료, 사료, 작업복, 각종 농업부자재, 목장용품, 가축관리시스템, 정원용품 등

- 지진복구 계기, 건설기자재 시장 공략
 - 2011년 2월 남섬 크라이스트처치서 발생한 지진의 복구작업이 잦은 여진으로 연기되고 있는 상황
 - 하지만 동 북구작업이 본격화되면 총 55억 달러의 지진복구기금이 투입될 예정으로 건설장비, 건설기자재 등 건설 관련 제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으로 그동안 폐쇄적이었던 뉴질랜드 건설 시장을 개척할 좋은 기회가 될 것임

□ 남태평양 도서국 진출의 전진기지로 활용

- 인구 253만, 남태평양 도서국 시장의 관문
 - 남태평양에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11개 도서국이 흩어져 있는데 전체 인구는 약 253만명, 총 수입시장 규모는 약 67억 달러로 추정됨
 - 향후 자원 확보 및 시장으로서의 전략적 가치가 확대될 전망임에 따라 최근 미국, 중국, 일본 등 태평양 연안 주요국들이 남태평양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경쟁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남태평양 국가들이 뉴질랜드를 물자 공급 및 자녀 교육기지로 활용하면서 수시로 방문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 뉴질랜드를 이들 국가 시장 진출의 전진기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한국의 남태평양 도서국 시장에 대한 수출액은 1억 달러를 약간 넘기는 정도의 미미한 상태로 수출확대 여지가 많음
- 상품 및 프로젝트 시장 진출 필요
 - 뉴질랜드를 통한 시장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으로는 기계류, 전자제품, 플라스틱 및 철강제품 등이 있음
 - 또한 이들 도서국에서는 국제기구 원조로 진행되는 각종 개발 프로젝트가 활발한 바, 뉴질랜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수주를 진행하는 노력이 필요

<남태평양 주요 도서국가의 개요>

국가명	2011년 인구	2011년 국민총생산 (US\$ 억)	2011년 총 수입금액(US\$ 백만)
피지	890,057	39	1,821
솔로몬 제도	584,578	8	405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274,512	4.58	1,725
뉴칼레도니아	256,275	31.58	2,047
바누아투	227,574	7.26	285
사모아	194,320	11.6	280
통가	106,146	7.55	159
합계	2,533,462	109.57	6,722

자료원 : CIA World Factbook

주)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뉴칼레도니아의 국민총생산 기준년도는 2009년

2. 투자 및 협력 확대 분야

□ 식량 및 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

- 미래 식량기지 확보를 위한 투자
 - 뉴질랜드는 세계적인 유제품 공급 국가이며, 인구 대비 넓은 농토 보유로 미래 식량 자원 보유국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질 전망
 - 특히 뉴질랜드는 인구의 약 10배에 달하는 가축과 선진 낙농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미래 식량기지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최근 중국 등 외국 자본이 뉴질랜드의 목장 구매에 적극적인 바, 우리나라도 식량확보를 위한 대뉴질랜드 투자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청정식품 생산기지로 활용
 - (주)오뚜기의 투자성공사례에서 보듯 뉴질랜드를 식품 생산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투자가 적극 권장됨.
 - 뉴질랜드는 풍부한 식재료 보유국임과 동시에 청정이미지 보유국으로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식품은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음. 따라서 프리미엄 식품 이미지 확보를 위한 투자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원목 확보를 위한 임업분야 투자처
 - 뉴질랜드는 세계적인 원목 공급국이자 우리나라 최대의 원목 수입 대상국임. 최근 중국과 인도가 뉴질랜드로부터 원목 수입을 대거 확대하였고 전 세계적으로도 원목 품귀현상이 나타나는 등 미래 원목 확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어 미래 자원확보 차원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함
 - 따라서 미래의 환경변화에 따른 자원부족 현상에 대비하고 원목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뉴질랜드 임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권장됨.

□ 뉴질랜드의 장점 활용을 위한 협력 및 투자

-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관광레저분야 투자
 -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고 환경오염이 확대되는 가운데, 온화하고 쾌적한 날씨를 보유하고 있고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뉴질랜드가 앞으로 관광국가로 더욱 부각될 전망
 - 따라서 호텔, 레저센터, 관광서비스 등 관광레저분야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고, 뉴질랜드 관광을 위해 한국을 경유하는 유럽 및 중국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 창출도 고려 필요

<주요 국가 관광객의 한국 경유 뉴질랜드 입국 추이>

(단위: 명)

연도	호주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미국	합계
2001	67	2551	5704	2819	2519	32	388	14080
2006	118	3503	7501	2761	2398	26	1409	17716
2011	132	1367	3197	3135	6305	64	475	14675

자료원: 뉴질랜드 통계청

- 뉴질랜드 영화산업과의 협력을 위한 투자
 - 뉴질랜드는 아바타, 반지의 제왕, 나니아 연대기, 킹콩, 실미도, 올드보이 등 수많은 영화의 촬영지였을 정도로 자연경관을 활용한 영화촬영지로 잘 알려져 있음. 또한 영화산업 육성을 위한 뉴질랜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잘 발달된 인프라로 촬영 후 편집제작 장소로서의 명성도 함께 쌓아가고 있음.
 - 이에 따라 공동투자 등 뉴질랜드 영화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국내 영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검토 필요
- 보트산업 협력 강화
 - 제조업이 취약한 뉴질랜드이지만 보트산업에서 만큼은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보트 제조업체수는 약 90개 정도로 추정되며, 전국적으로 보유한 선박 숫자는 47만2천대, 마리나 숫자는 남반구 최대 마리나로 알려진 오클랜드의 Westhaven Marina를 포함 전국에 41개가 있음

- 최근 뉴질랜드 보트산업이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보트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어 양국 기업간 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 증대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

□ 상호 협력 강화 필요 분야

○ 에너지 산업

- 뉴질랜드는 환경보존에 매우 민감한 국가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활용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2010년 현재 전체 전력 중 74%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얻고 있는데 이 비중을 2025년에는 9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임. 특히 뉴질랜드 정부는 태양광, 바이오 에너지, 조력, 파력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뉴질랜드는 2010년부터 파력발전장치를 실험 중인데 한국의 중공업 회사와 공동으로 해양에너지 발굴을 위한 관련 장비의 공동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또한 최근 뉴질랜드에서는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술 인력 및 기술 인력 교육프로그램은 부족한 상태로 이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높을 전망
 - 뉴질랜드의 낙후된 산업용 보일러 플랜트 컨트롤 시스템, 보일러 효율 제고 기술 등에서도 한국과 협력할 분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전망
- 뉴질랜드가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IT 산업에서 양국이 상호 협력할 분야가 많을 전망

3. 한-뉴 FTA 체결을 통한 협력방안

□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 4차 협상 후 교착상태
 - 2009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의 뉴질랜드 국빈 방문시 FTA 협상의 공식 개시를 선언한 후 2010년 5월까지 모두 4차례 협상
 - 현재 양국간 이견 및 한국내 일정 등의 이유로 교착상태에 있음
- 주요 쟁점들
 -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EU, 미국 등과의 FTA 처리를 위한 국내 일정이 매우 촉박하고 어렵게 진행되었고, 이에 더하여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품에 육류 등 민감 품목이 포함되어 있고 뉴질랜드 측의 과도한 농축산물 시장개방 요구도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협상이 진척되지 못했음
 - 또한 한국 입장에서는 뉴질랜드의 현 관세율이 0%이거나 매우 낮아 FTA로 인한 관세율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은 것도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한 요인으로 작용
 - 반면,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한국이 FTA를 통해 칠레, 미국, EU 등 뉴질랜드가 경쟁하고 있는 나라들로부터 육류, 농산물 등의 수입을 늘리면서 한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어 한국과의 조속한 협상 재개를 희망하는 입장

□ FTA 체결시 기대 효과

- 한국 측의 기대효과
 - 양국 관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심화 발전시킬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양국간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특히, 뉴질랜드는 남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국가로 향후 남태평양 지역과의 협력확대 과정에서 뉴질랜드의 협조 기대 가능

- 또한 뉴질랜드는 미래의 식량 및 자원기지로서 안정적 자원 확보 차원에서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며, 관광, 영화, 보트 등 고부가 산업분야에서의 협력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이밖에도 FTA 체결은 뉴질랜드 내 한국 및 한국 상품의 인지도 제고 효과를 가져와 최근 탄력을 받기 시작한 우리나라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 뉴질랜드가 추진하는 각종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또한 협상에 따라 양국 인력의 교류 확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뉴질랜드 측의 기대효과
- 뉴질랜드는 한국과의 FTA가 뉴질랜드의 1차 상품이 한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
 - 즉, 뉴질랜드는 FTA를 통한 관세인하 효과 없이는 칠레, 미국, EU, 호주 등 한국과의 FTA 체결 혹은 체결 예정 국가들과 한국시장에서 경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또한 FTA를 통해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훨씬 용이해짐은 물론, 영화, 에너지, 환경, IT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확대되어 뉴질랜드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III. 시사점

□ 우호 관계 불구, 경험실적은 미흡

- 지난 50년간 양국관계는 뉴질랜드의 한국전 파병,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지지 등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며 양호하게 발전하였으나 경제 협력을 통한 양국 관계의 발전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
- 특히, 2000년대 이후 급변하는 국제 경제 질서 속에서 양국은 생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면서도 양국 간 협력을 통한 활로개척에는 미온적 태도 유지
- 4차례 진행되었던 FT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상호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경험 패러다임 구축이 필요한 시점

□ 무역확대의 기로 맞아

- 한국의 對뉴질랜드 수출이 2011년 1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한 상태며, 뉴질랜드의 對한국 수출 역시 2011년 14억 달러를 넘어 확대되는 추세로, 한국은 뉴질랜드의 5번째 수출시장으로 자리잡음
- 최근 뉴질랜드 경제는 서구(西歐)경제권에 대한 의존에서 점차 벗어남과 동시에 아시아권 경제와의 협력을 빠르게 확대하는 과정에 있는데, 한국 상품의 브랜드 및 품질 인지도가 최근 급상승하면서 유럽, 미국, 일본 상품은 물론이고 품질 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 상품의 대체품으로서 인정받아 향후 대폭적인 수출 확대가 기대됨
- 특히, 뉴질랜드 시장에서 삼성, 현대 등 대기업 상품이 크게 선전하면서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전략적 접근 노력이 더해질 경우 중고급 상품 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약진이 가능할 전망됨

□ 뉴질랜드의 전략적 활용도 높여야

- 최근 한국은 EU, 미국, 칠레 등과 FTA를 체결하면서 공산품 수출을 확대함과 동시에 농산물, 축산물 등 1차 상품의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 노력도 기울이고 있는데, 뉴질랜드 역시 식량 등 1차 자원 확보 차원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국가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즉, 1차 상품 공급처의 다변화 차원뿐만 아니라 청정 이미지의 식량 및 식품기지로 뉴질랜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
- 이밖에도 보트산업, 영화산업, 관광산업, 녹색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분야에서 뉴질랜드와 상호 보완적 역할 분담을 통한 상호 이익 증대가 가능할 전망이며, 뉴질랜드를 남태평양 도서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이 모든 협력 관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담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한-뉴 FTA 협상 재개를 통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 모델 및 협력분야 발굴이 필요

□ 단순 우호관계에서 중요 경험파트너로

- 한국과 뉴질랜드는 경제적으로 매우 보완적인 특성을 가진 나라로 향후 협력관계 구축 정도에 따라 중요한 경험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임
-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식량부족, 식품안전 문제가 대두되면 될수록 뉴질랜드의 전략적 활용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 역시 경쟁력 높은 제조상품 공급처, 일부 제조업 분야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 안정적 시장으로서 뉴질랜드에게는 활용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전망
- 따라서 한-뉴 양국은 과거 5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단순 우호관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요한 파트너 관계로 발전시켜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음

끝.

작성자

◆ 오uckland KBC 장수영 관장
◆ 선진시장팀 김광수 차장

Global Business Report 12-020

수교 50주년 한-뉴경제관계변화와 협력방안

발 행 인 | 오영호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2년 7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2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